

목조문화재 화재대책 '전무'

송광사 국사전 등 국보급건물 등 심각 우상호의원 지적

국보급 사찰목조문화재 화재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인 순천 송광사 국사전 및 영암 도갑사 해탈문 등이 화재 한 번으로 전소될 수 있으며 나머지 11곳의 사찰건축물 역시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보 목조문화재 사찰건축물 소방대책 현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월 6일 실시된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급 목조문화재 13곳 중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인 곳은 단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헬기가 5분 내에 도착하는 곳도 양산 통도사 단 한 곳뿐이었다.

소방대책으로 우 의원은 △국보급 사찰건축물 13곳 소방차 상시 배치 △소방헬기 5분내 도착 방안 강구 △문화재 특성별 '문화재 소방법' 신규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목조건축물의 해충 피해와 해마다 들어가는 문화재 도난문제 등 정부의 문화유산 부실 관리 실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

판도 쏟아졌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 제800호)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년 대비 발생률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홍준 문화재청장은 "흰개미를 근절하기 위해 건물에 센트리온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관리방향을 밝혔다.

한편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판관대장경을 조판한 자리인 선원사 터가 잘못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향토사학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원사터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선원전 선형리 중첩사 부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미술사학자이기도 한 우 청장은 이 제언에 대해 즉각 "전면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던 서산 마애삼존불에 대한 대책방안도 짚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정밀진단 예산을 신청, 내년 봄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이사장에 흥승희씨
민병천씨 새이사로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 새 이사장에 흥승희 이사(성곡문화재단 이사장·사진)가 선출됐다.

10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6명의 진흥원 이사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 109차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흥승희 이사장은 "과산수련원을 활성화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진흥원을 혁신하고, 디지털사건 제작, 장경호 거사 추모 문집 발간 등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재도약과 이미지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 새 이사에는 전 서경대 총장 민병천 진흥원 감사가 선임됐다. 김원우 기자

종범 스님 총장 재추대

중앙승가대 총장 추천위원회는 10월 6일 서울 개운사에서 제1차 추천위를 열고 제4대 총장에 현 총장 종범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종범 스님이 지난 4년간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종단 내에서 중앙승가대 위상을 지켜내는데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기자

7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

22~27일 베이징서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대회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한·중·3국의 불교교류의 상징인 이 대회는 올해로 10년째다.

본 행사는 '한·중·일 불교 황금 유대의 신구상'이라는 주제로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이 기조 강연에 나선다.

교류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학술 강연회에는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자월 스님과 현대종 교무국장 월도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가 한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병영 기자

■황우석 교수 동국대서 '불교의 관점...' 특강

"내 생명관의 뿌리 능엄경에 있어요"

올해 조계종 자랑스런 불자상 수상자인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0월 6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 최고위과정에서 '불교의 관점에서 본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황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능엄경에 나오는 불교의 생명관이 평소 생각했던 생명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는 숲이 아니라 겨우 나무를 보는 정도며 불교를 비롯한 종교,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조화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석 교수

과학자의 윤리적 갈등 '생명구제' 원력으로 기도

황 교수는 이날 서울 소피텔 호텔에서 최고위과정에 재학중인 불교계 종신스님들과 재가불교지도자 100여명을 상대로 불교가 자신의 생명복제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세계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황 교수는 목실한 불자로, 20여 년 전부터 강화 전등사 등에서 예불과 절 수행으로 신심을 다지고 있다.

황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자신이 장기복제와 줄기세포연구에 매달리게 된 배경, 매 과마다 불심에 의지해 역경을 이겨냈던 사

연, 불자면서 과학자로서 겪는 윤리적 갈등문제 등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담담히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시작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평소 자신의 생명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이종(異種) 장기 이식 연구에 필요한 무균미니돼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

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며 절박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해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결국 부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자신은 "지금까지 증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심정으로 연구에 매달려 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은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4주 28일이 지난 인간의 씨앗부터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생명으로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설명하자, 황 교수는 "생명을 언제부터든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현재 과학자들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정 4주후 착상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데, 부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며 감탄했다.

그는 또 "만약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연구가 성공했을 때 그 과실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과학자로서의 투철한 소명 의식을 밝히기도 했다.

조용수 기자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독자 원고

11편 선정...다음호부터 2면에

본지가 펴지고 있는 연중 캠페인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원고를 모집, 심사한 결과 총 11편의 원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선정된 원고를 보내주시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대원(의정부 호원동) ▲김유신(서울 성북구 동선동) ▲민정희(서울 중구 장충동) ▲손무수(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종욱(광주 서구 풍암동) ▲이귀인(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용성(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정훈(서울 관악구 불천동) ▲이준성(부산 남구 용호동) ▲장만수(대구 달성군 화원읍) ▲조현준(대구 북구 산격동)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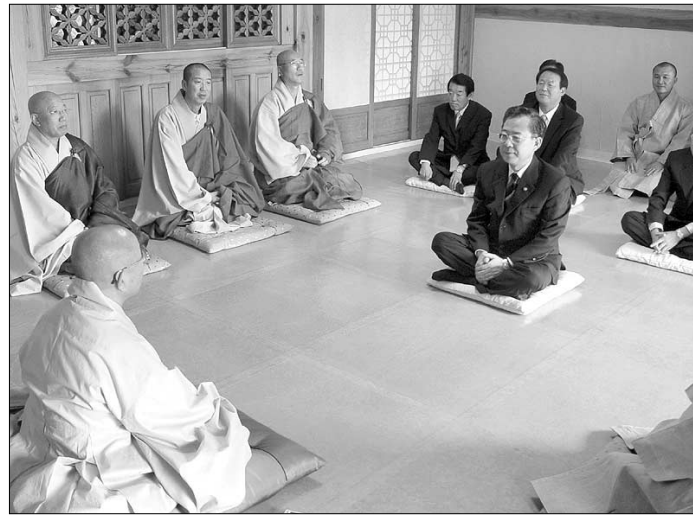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정동채 장관 종정 스님 예방 '릴레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10월 7일 합천 해인사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사진)한데 이어 6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8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각각 예방했다. 정 장관에게 법전 스님은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하려면 각자 자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법문했다. 혜초 스님과 도용 스님은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배지선 기자

불교생태학 저변확대 모색 東大, '에코포럼' 16일 창립

동국대가 대학특성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불교생태학'의 사회적 저변확대를 위해 고건 총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에코포럼(공동대표 홍기삼·고건·권태준)'을 10월 16일 창립한다. 주요 참가 인사로는 동국대 박경준(준비 위원장)·오충현·이상현 장시교 교수, 서울대 이도원, 상지대 최종덕, 서울시립대 이경재, 포항공대 김승환, KAIST 박형규 교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백남석 공동대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 교통개발연구원 원동욱 연구원 등 50여 명이 있다.

이들은 창립행사가 열리는 16일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토론회를 열어, 불교생태학과 관련한 이론·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한다. 또 정례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제연구와 협동교육을 위한 문화소통의 기반조성, 관련분야 네트워크 형성, 시민사회 및 종교계의 실천운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1기 주제는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으로 확정됐으며, 이후 '육망과 생명'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의 공동체' 등의 기별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홈페이지 개설, 총서 발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조용수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시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功치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받는다! 소주술성법, 삼기법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원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비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구독신청

02-737-0090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화두의심은 한번 잡들일 때 바로 일념이 만년되도록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좋은 인연입니다 "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